

3월이면 야구 보기 시작할 타이밍이 딱 오잖아요. 2026년에도 마찬가지고, 특히 MLB는 3월 25일에 정규시즌 문을 열어요. 이 날짜에 딱 맞춰서 야구중계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, 사실 개막전은 단순히 “첫 경기”라는 의미를 넘어서 시즌 흐름을 한 번 훑는 시점이라 더 챙겨보게 되더라고요.

이번 글은 2026 정규시즌이 어떤 구조로 굴러가는지, 그리고 3월 25일 개막전이 뭔지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해볼게요. 중계 보려는 사람 입장에서 “뭘 확인하고, 어떻게 시간대 계산을 해야 될 헛갈리는지”까지 같이요.



2026 MLB 정규시즌, 3월 25일에 시작

MLB는 2026 정규시즌을 **2026년 3월 25일(수)**에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. 개막전 매치는 **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vs 뉴욕 양키스**예요.

이 한 경기로 시즌이 열리니까, 야구중계를 보려는 분들이 중계 링크 찾으면서 “이 경기가 정확히 언제부터인지”를 제일 먼저 확인하더라고요.

여기서 중요한 건, MLB 경기 일정 표기는 기본적으로 **ET(미국 동부시간)** 기준으로 제공된다는 점이에요. 한국(KST)은 보통 **13시간 차이**가 난다고 잡으면 돼요.

즉, [오늘 야구중계](#) MLB에서 ET로 적혀 있는 시작 시간을 한국 시간으로 보려면 13시간을 환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. 이 부분만 정확히 잡아두면, 야구중계사이트에서 클릭했는데 시작이 밀려 보이거나, 반대로 너무 일찍 들어서 기다리는 상황을 꽤 줄일 수 있어요.

“개막전인데 더 챙겨봐야 하는 이유”는 시즌 구조 때문

개막전 자체가 화제가 되는 건 당연하지만, MLB는 포스트시즌 구조가 꽤 독특해서 초반 흐름이 더 신경 쓰이기도 해요. 2026 시즌 운영 방식은 다음처럼 안내돼 있어요.

- 정규시즌은 **162경기 체제**
- 순위는 지구 단위로 쌓이고,
- **디비전(지구) 우승팀 상위 2팀은 디비전시리즈로 직행**
- 나머지 팀들은 **와일드카드 시리즈**로 포스트시즌을 시작

이 구조 때문에 3월 말 개막부터 “어차피 시즌 길지”라고만 넘기기엔, 지구 경쟁이 꽤 빨리 윤곽을 잡아요. 물론 162경기라서 단 한 경기로 판이 뒤집히진 않겠지만, 개막전 분위기가 좋으면 그 팀의 페이스를 시즌 중반까지 이어가

는 경우가 흔하거든요. 반대로 개막부터 흔들리면, 그 팀은 뒤에서 만회가 더 빠세지고요.

그래서 3월 25일 첫 경기, 자이언츠와 양키스의 대진은 단순 이벤트라기보다 “이번 시즌 순위 레이스 시작 신호”에 가까운 느낌이에요.

한국 시간으로 언제 보나, 시간대 계산이 핵심

야구중계를 틀려고 할 때 사람들이 제일 자주 겪는 문제가 두 가지예요.

첫째는 일정 표기가 ET라는 걸 놓치는 경우예요. ET 기준을 한국 시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대충 계산했다가 어긋나는 거죠.

둘째는 야구중계사이트마다 “표시되는 시간대”가 다를 때예요. 어떤 곳은 한국 시간으로 바꿔 보여주고, 어떤 곳은 그대로 ET를 두고 보여줄 수 있어요. 그래서 “사이트에서 적힌 시간이 맞는지”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아요.

정리하면, 가장 안전한 방식은 이거예요. MLB 공식 일정에서 해당 경기의 시작 시간을 확인하고, 그걸 **ET 기준 + 13시간 차이**로 한국 시간으로 환산하는 흐름으로 맞추는 거예요. 이러면 야구중계사이트에서 시간을 어떻게 표시하든, 최소한 내가 기대한 시작 타이밍이 맞는지 검증할 수 있어요.

MLB 중계 보러 갈 때, 야구중계사이트 선택 기준

솔직히 말하면, 개막전 같은 날은 접속자가 몰리면서 화면이 버벅이거나 끊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사람마다 “어디서 보든 같은 거 아니야?”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경험상 그 생각은 오래 못 가더라구요. 특히 MLB는 정규시즌이 162경기라 시즌 내내 계속 보게 되는데, 첫날부터 만족도가 갈리는 편이에요.



야구중계사이트를 고를 때는 “일단 되는 곳”보다 “확인 가능한 곳”이 더 오래 편해요. 공식 일정과 연결해서 확인이 되는지, 그리고 실제로 시작이 안 맞는 경우에 대비가 되는지 이런 쪽이 중요합니다.

아래는 제가 현장에서 중계 찾을 때 습관처럼 확인하는 포인트예요.

- MLB 공식 일정에서 경기 시작 시간과 팀 매치를 먼저 확인하기
- ET 표기를 한국 시간(KST)으로 환산할 때 13시간 차이 기준으로 맞추기
- 중계 채널 표기(Where to watch 등)가 경기 일정과 함께 업데이트되는지 보기
- 비슷한 이름의 경기 페이지를 착각하지 않도록 팀 매치를 다시 대조하기
- 우천 취소나 연기 같은 변수가 있는 날은 “일정 갱신 여부”를 같이 확인하기

이 정도만 잡아도 개막전 당일 허둥대는 확률이 확 줄어들더라고요.

2026년 3월 25일, 그날의 포커스는 “자이언츠 vs 양키스”

다시 핵심으로 돌아가서요. 2026 MLB 정규시즌 개막전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뉴욕 양키스의 경기에요.

그리고 일정은 **3월 25일(수)**이에요.

이 조합은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상징성이 크잖아요. 특히 양키스는 매 시즌 화제가 집중되는 팀이라, 개막전 상대가 누군지에 따라 경기 시청 동기가 확 생깁니다. 자이언츠도 시즌 초반부터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면 장기적으로 팀이 편해지는 경우가 많고요. 물론 그건 “경기를 보고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느냐”가 먼저라서, 여기서는 일정과 준비 관점만 깔끔하게 잡고 가는 게 맞겠죠.

KBO 개막은 3월 28일, MLB와 겹치는 구간을 어떻게 볼까

MLB 개막이 3월 25일이면, 한국 프로야구(KBO)는 **2026년 3월 28일(토)**에 개막해요. 개막전은 **상위 5개 팀 홈구장**에서 열린다고 안내돼 있고요.

KBO는 **단일리그제**, 팀당 **144경기**, 총 **720경기** 체제로 운영된다고 공식 안내되어 있어요. 시즌 길이와 경기 수가 MLB와 다르다 보니, 시청 루틴을 어떻게 짜느냐가 꽤 실전이에요.

그리고 또 하나는 시차예요. MLB 경기 일정은 ET 기준으로 표기되는 편이라, 한국에서 MLB 보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시차 환산을 습관처럼 익히게 됩니다. 반면 KBO는 한국 시간에 맞춰 편성되는 경우가 많아서, 같은 날 “어느 쪽을 먼저 볼지” 선택이 달라지더라고요.

개인적으로는 이런 방식이 덜 지치더라고요.

하루에 전부를 다 보려 하기보다, MLB 개막 주간에는 “오전이나 늦은 시간대에 시작하는 경기”를 중심으로 먼저 체크하고, KBO는 개막 이후에 리듬을 잡으면서 붙여가는 쪽이요. 한 번에 다 잡으려 하면 집중력이 먼저 새요.

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면 좋을까

야구중계를 보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순간은, 시작 시간이라 중계 페이지의 시작 표기가 안 맞을 때예요. 그래서 “확인 순서”를 정해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. 엄청 거창할 필요는 없고, 딱 한 번만 습관화해두면 다음부터 편해요.

핵심은 이거예요. MLB는 공식 일정이 업데이트되니까, 그걸 기준으로 시작 시간을 먼저 확인하고, 한국 시간으로 바뀌어서 내 달력처럼 생각하는 거죠. 그러면 야구중계사이트를 어디로 가든 “내가 맞춰야 할 시작 시각”이 생깁니다.

포스트시즌 구조를 알면 개막전이 더 재밌게 느껴져요

앞에서 말했지만, MLB는 포스트시즌이 단순히 “기록 좋은 팀이 다 가는 구조”로만 굴러가지 않아요. **지구 우승팀의 상위 2팀은 디비전시리즈로 직행**, 나머지는 **와일드카드 시리즈**라는 흐름이 정해져 있죠.

이걸 알고 보면 개막전이 더 재밌어져요. 왜냐면 시즌이 진행되면서 “지구 우승 경쟁”이 계속 쌓일 텐데,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 승수가 쌓이는 방식이 의미가 생기거든요. 개막전에서 이기는 팀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. 162경기라 변수도 많고, 부상이나 일정 같은 현실 변수가 분명 있으니까요. 대신, 시즌의 초반 페이스가 다음 달 경쟁 구도에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하고, 그 출발점이 3월 25일이에요.

정리: 3월 25일 개막전은 “자이언츠 vs 양키스”, 시차만 잡으면 끝

2026 MLB 정규시즌의 출발은 분명해요.

- **2026년 3월 25일(수)**에 정규시즌 개막

-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vs 뉴욕 양키스가 개막전

그리고 한국에서 보는 입장에선 딱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. MLB 일정은 **ET 기준**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, 한국 시간으로는 보통 **13시간 차이**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에요. 이걸 기준으로 잡아두면, 야구중계사이트에서 화면을 틀었을 때 “내가 생각한 시작 시간이랑 실제가 다르다”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.

야구중계로 하루를 채우는 게 즐거운 이유는 결국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쟁의 맛 때문이잖아요. 개막전은 그 맛의 첫 단추고요. 3월 25일, 자이언츠와 양키스 경기를 시작으로 162경기의 레이스가 풀린다고 생각하면, 준비하는 마음도 더 단단해집니다.

